
u-City의 공간개념과 도시건설의 주체별 역할

Consideration of the Spatial and Physical Planning and the Role of Participants for Ubiquitous City

최봉문

목원대학교 도시공학부

Bong-Moon Choi(bmchoi@mokwon.ac.kr)

요약

최근 u-City에 대한 각급 정부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신도시 및 도시재개발에 있어서 u-City를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u-City의 공간개념이나 공간계획에 대한 고민이 미흡한 가운데 단순히 첨단기술의 집합체로써 u-City에 대한 계획 및 건설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u-City를 단순히 첨단기술의 집합체로써만이 아닌 시민의 생활을 담아내는 공간이며 기초적 도시의 환경으로써 정의하고, u-City에 대한 관점과 최근 동향을 검토하였다. 이를 기초로, 본 연구는 바람직한 u-City 건설을 위한 공간계획적 접근 방안으로써 계획단계, 건설단계, 관리운영단계를 제시하고, 끝으로 각 단계 및 공간위계에서 필요로 되는 구성주체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 중심어 : | 유비쿼터스 | 유비쿼터스 도시(u-City) | 공간계획 | u-City 계획 |

Abstract

Recently, the concern of ubiquitous City(u-City) in each level of governments is on the increase, and they are professing themselves to follow the u-city concept on constructing new urban development or urban renewal project. But the u-city plan and construction proceed as the simple sets of advanced technology without fundamental space concept or space plan of the u-city. Therefore, the u-city as a citizen's living space and a basic urban environment is defined in this article, the viewpoint of the space plan and the recent trends of u-city in korea are reviewed. On the basis of this review, this article proposed an approach of the spatial plan for a u-city construction, here the approach consisted of the 3 stages of planning, constructing, and maintaining of the u-city, and finally the role of the participant in the each stage and spatial hierarchy was proposed.

■ keyword : | Ubiquitous | Ubiquitous City | Space Planning | u-City Plan |

1. 서론

1. 연구배경

최근 신도시나 재개발단지의 경우 대부분 유비쿼터

스 도시(이하 u-City)를 표방하고 있으며, 국가적으로도 「유비쿼터스 도시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는 등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술적인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사람이 살아가는 도시공간으로서 유비

접수번호 : #081230-004

접수일자 : 2008년 12월 30일

심사완료일 : 2009년 01월 23일

교신저자 : 최봉문, e-mail : bmchoi@mokwon.ac.kr

쿼터스 도시의 공간구성의 개념이나 공간계획에 대한 기반구축이 미흡한 가운데, 실제 도시개발에서 u-City의 계획 및 건설이 이뤄지고 있으며, 벌써 관리와 운영을 고민하는 도시도 있다.

u-City는 IT기술을 집대성한 유비쿼터스 기술을 도시공간에 융·복합하여, 혁신적인 도시가치를 창출하는 지속가능한 미래형 첨단 친환경도시라고 설명하고 있다[11]. u-City에서 유비쿼터스 공간의 구성과 역할은 해당 공간(시설)에 접목되는 유비쿼터스 기술과 제공되는 서비스(혹은 콘텐츠)에 따라 변화가 예상되지만, 현재처럼 지금까지 적용되어오던 기존의 공간개념을 그대로 적용하게 된다면 새로운 공간개념인 전자공간과 실제공간의 융합공간이라는 유비쿼터스 공간개념을 전제도 이루어지는 u-City에 대해 당연히 기대되던 최적화의 효과나 만족도의 제고라는 측면에서 효용성이 제한받을 수 있거나 새로운 비용의 발생이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문제의 발생이 예상되기도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첫째, 과학기술 발달의 성과물들의 집합체나 각종 통신장비와 컴퓨터 장치들의 집합체로서 u-City가 아니라, 시민들의 생활을 담는 공간이면서 시민생활을 둘러싸고 있는 도시환경으로써 u-City와 u-City의 공간에 대한 개념을 먼저 규정하고, 둘째,

u-City의 실현을 위해 공간계획의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관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며, 셋째, u-City의 건설 과정에 관련하는 다양한 구성주체들이 각각 바람직한 u-City 건설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를 제안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하고 있다.

II. u-City에 대한 이론적 고찰

2.1 u-City 개념과 공간구성

가) u-City 개념

지금까지 소개된 u-City의 개념을 정리하면, u-City는 유비쿼터스 기술이 접목된 공간과 도시구성요소가 상호 전자공간으로 연결되어 정보를 주고받고, 사람과 커뮤니케이션을 이루고,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수 있는 도시로 도시구조의 합리성과 생산성, 편리성, 쾌적성, 환경성 등이 고도화된 도시이다. u-City는 도시공간과 도시활동을 지원하는 시스템온칩(SoC : System on Chip) 인프라를 기반으로 구현되며 도시의 기능성, 환경성, 가치성이 고도화된 도시이다[그림 1].

나) u-City의 공간구성

u-City의 공간구성 요소는 크게 물리적 요소와 비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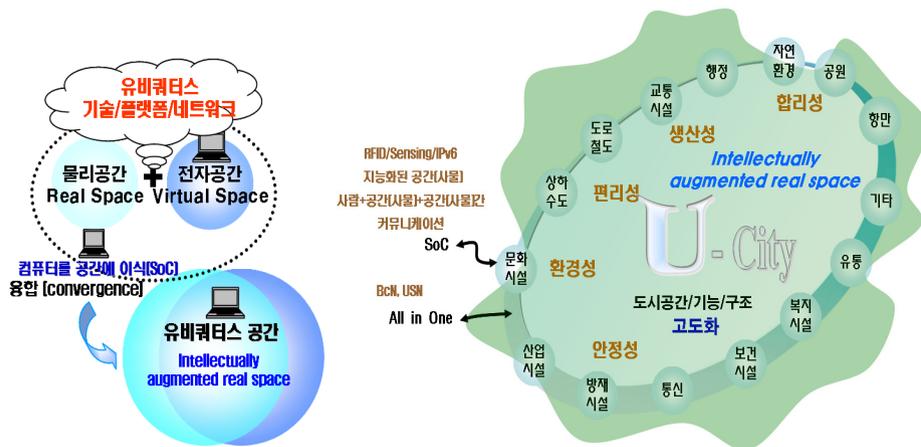


그림 1. 유비쿼터스와 u-City 공간 구성

리적 요소로 구분할 수 있으며, 물리적 요소는 점적 요소, 선적 요소, 면적 요소이며, 비물리적 요소는 콘텐츠(contents), 기술(Technologies), 인터페이스(Interface)로 구분될 수 있다[표 1].

표 1. u-City 구성 요소

요소 구분		세부 내용
물리적 요소	점적 요소	사람, 건물, 사물(전광판, 가로등, 전신주 등)
	선적 요소	유선망, 도로망, 철도망, 상하수도망, 전선망 등
	면적 요소 (지구 또는 구역)	시가지, 단지, 특정 지구, 가구 등
비물리적 요소	콘텐츠 (Contents)	u-Service(행정, 문화, 교육, 보건, 금융, 시설관리 등)
	기술 (Technologies)	RFID, UFID, BcN, IPv6, 블루투스, DMB 등
	인터페이스 (Interface)	물리적, 사이버공간, 사람간의 인터페이스

2.2 u-City에 관한 관점 고찰

가) 제안자 특성별 관점

u-City에 대한 제안관점은 u-City가 건설됨으로써 얻어질 수 있는 편익측면에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는 '첨단 기술의 발전과 적용을 강조'하는 관점으로 '첨단 정보통신 인프라와 유비쿼터스 정보서비스가 도시 공간에서 융합되어 국가의 모든 자원을 지능화/네트워크화 되어 지능적으로 도시가 관리되는 것'으로 보는 관점이다. 이러한 주장은 주로 통신 및 SI 관련기업에서 주장되고 있으며, 기술 발달로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사람들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수동적으로 적응하며 살아갈 것으로 생각한다. 또 u-City의 공간적인 측면은 중요한 고려대상이 아니고, 기존의 도시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정보통신망과 각종 장치의 추가만으로 u-City를 건설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둘째는 '시민의 삶의 질을 강조'하는 관점으로 '정보화에 따른 도시생활의 편의증대와 삶의 질 향상, 주민의 안전관리와 시민복지향상 등을 이룰 수 있고, 친환경·자급자족·지속가능한 구조의 도시가 건설될 수 있다'는 관점이다. 최초로 u-City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등장한 주장이지만 현실적으로 이 중 몇가지가 기술

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검증이 되지 않았고, 선진국의 경험을 보면 결코 첨단정보기술의 도입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약속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대부분의 정부 및 지자체의 공무원들이 유비쿼터스와 관련된 정책을 입안하고 홍보할 때 이러한 주장을 앞세우고 있다.

끝으로 '경제발전의 동인을 강조'하는 관점으로 'u-City는 인재가 모이고, 혁신이 일어나며, 신산업의 창출 등 도시의 제반 기능을 혁신시켜 도시 및 국가경제발전의 동력을 제공하게 된다'는 관점이다. u-Korea 전략계획의 주요개념인 IT839의 공간적인 실현체로서 u-City를 제안하는 저변에 깔려 있는 내용도 세계 최초로 u-City를 건설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을 과시하려는 목적이 담겨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국가정책의 가장 중심적인 키워드였던 혁신을 도입한 개념으로 혁신도시나 기업도시 등 국가가 추진하는 신도시 건설에서 u-City 건설이 빠지지 않고 포함되는 것도 동일한 배경으로 볼 수 있다.

나) 긍정적응호적 관점

u-City에 대한 긍정적 시각은 우리나라의 정보통신 기술이 세계적인 것이고 전국적으로 갖춰진 고속인터넷 첨단정보통신망의 보급과 휴대폰 등의 개인정보 단말기가 u-City의 기반이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입장이다. 즉, 첨단 기술의 발전이 환경을 변화시키고 시민들의 생활방식도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변화해 갈 것으로 생각하며,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이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며, 국내외에서 제기되고 있는 정보화 사회의 비판적인 측면들을 지나친 기우로 보고 있는 시각이다.

더욱이 긍정적 시각의 사람들은 비록 가설수준이거나 실험실적인 수준이라도 사업자를 설득해서 사업으로 시작되면 어떻게든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가능하면 국가사업으로 시작하여 그 파이를 키우는 것이 더 성공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들은 시민들이 새로운 기술에 매력을 느끼고 있고, 새로운 기종이 나오면 바로 구매하는 젊은 층의 생활패턴을 우리나라의 국민수준으로 생각하고, 대부분의 국민들

이 새로운 정보기술의 혜택을 보기 위해 기꺼이 많은 비용을 부담할 의사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다) 비판적신중론적 시각

u-City에 대한 또 다른 시각은 아직은 유비쿼터스 기술이 실험적인 수준으로 u-City 건설에 신중한 접근을 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주장되고 있는 기대효과는 모두 지나치게 부풀려져서 많은 비용투자에도 불구하고 실제 달성가능한 일들은 한정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본격적으로 사업화되기 전에 실험적인 시도가 계속되어야 하고, 기술발전의 추이에 따라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무엇보다도 급속도로 발전해 가는 기술수준에 비해 현재의 기술력에 따라 조성되는 설비나 각종 인프라가 혁신적인 기술변화에 따라 용량부족이나 추가설비의 요구, 매개수단의 변화 등으로 재투자가 필요해 질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있다. 또한 시민들은 급진적인 기술발달에 쉽게 적응하지 못할 것이고, 시민들이 부담하는 비용에 비해 얻어지는 편익이 적을 경우에는 무용론이 등장하고, 투자된 설비들의 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것을 염려하고 있다.

2.3 u-City 건설에서 공간계획의 필요성

유비쿼터스 기술이 접목된 도시공간으로 설명되는 u-City에 관하여도 아직 정확한 개념정의나 깊은 학술적인 연구의 충분한 뒷받침 없이 몇몇 신도시에서는 도시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단계까지 도달하고 있다. 아직은 구상과 설계단계에 있기 때문에 도입기술과 도시시설 그리고 건설비용이 가장 중요한 논점이 되고 있지만 실제 도시건설이 완료된 후 시민들이 들어가 살게 되는 단계에 이르면 미처 예상치 못한 문제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특히 학술적인 연구가 필요한 점은 컴퓨터가 내재된 능동화 도시공간이 인간의 생활 환경을 최적화 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과, 그러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이 과연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할 것인지, 그리고 u-City가 실현되기 위해 필요한 막대한 비용투자에도 불구하고 어느 부분에서 얼마만큼의 편익을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 막연히 결과만을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u-City도 도시민들의 삶의 공간인 만큼 도시속의 생활주체인 시민의 삶과 공간계획의 대상으로서 u-City가 검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활동(activities)과 생활양식(life styles)을 파악하고 이에 기반 한 공간계획 측면의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가 아직 시작되지 못하고 있고, 공간계획이나 도시건설의 단계 속에서 어떻게 u-City를 고려하고 개발하며 도시개발사업의 각종 주체들이 각자의 역할을 분담할 것인지 등 공간계획과 도시개발의 측면에서 u-City의 실현에 대한 연구는 이제 시작단계라고 할 수 있다.

III. u-City 개발과 공간계획

3.1 공간계획과 u-City 융합방안

u-City에서 공간계획과의 관계는 지금까지 주장되어 오던 정보화 도시(information city)의 공간과의 관계와는 차이가 있다. 기존의 정보화 도시는 정보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정보를 수신하고 발신하는 통신기지가 도시개발의 중심이 되고, 공간관계에서 거리라는 제약사항을 극복하여 자유로운 입지가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되어 왔고, 실제 몇몇 선진국에서 텔레콤 센터를 중심으로 신도시 형식의 도시개발이 건설되기도 하였다. u-City 공간은 기존의 도시공간에 전자적 공간이 융합되는 것으로 새로운 건축물이나 공간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도시공간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식별자와 센서가 연결된 컴퓨터가 공간속에 내재되면서 u-City로의 전환이 가능하고,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각종 정보통신 인프라나 도시공간구성이 유비쿼터스 환경에 최적화 되면서 공간이용과 시민들의 활동변화를 반영한 신개념의 공간구조를 가질 수 있다는 융통성이 있다.

3.2 도시건설 단계와 u-City 적용방안

일반적인 도시건설의 단계와 같이 u-City의 건설단계도 크게 계획단계, 건설단계, 관리·운영의 3단계로 구분하여 볼 수 있으며, u-City 건설 단계에 따른 주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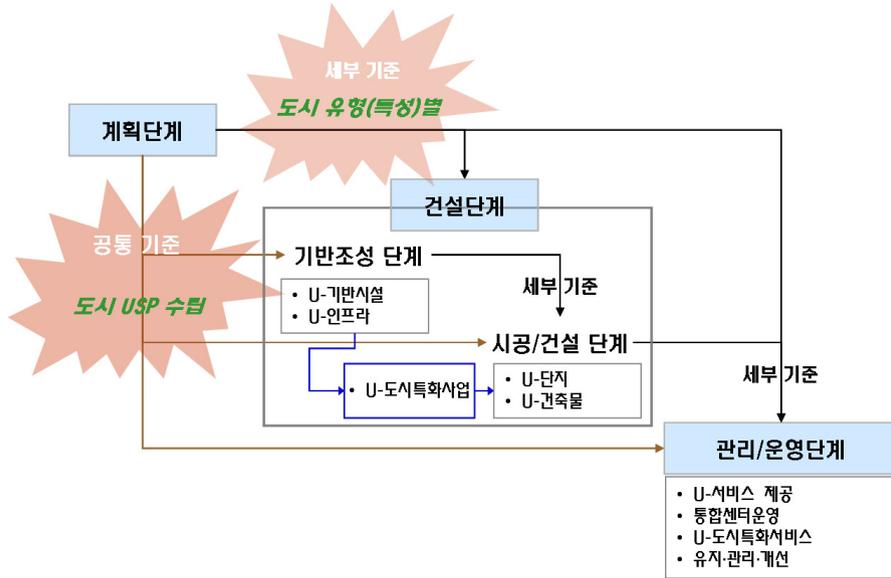


그림 2. 도시건설 단계별 u-City 적용 및 주요 대상 사업

사업 유형은 계획사업립), 시설/인프라·단지/건축물의 시공 및 건설, 건설 완료 후의 서비스 관련 사업 및 유지·관리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각각의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그림 2]와 같다.

가) 계획단계

계획수립 이전에 u-City의 구성원들의 수요와 현재와 가까운 미래에 실현 가능한 기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현재의 도시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적용방안 도출하고 u-City 구현을 위한 과제 도출 및 해결방안 제시하여야 한다. 현황분석을 기반으로 실천 가능한 u-City Vision 및 목표를 정량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지표로 제시하고 Road Map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u-City 추진전략 속에는 서비스모델과 구현모델이 구분되어 설계되고, 법/제도, 예산/재원, 홍보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공간계획과 연계될 수 있도록 고려되어 수립될 수 있어야 한다.

나) 건설단계

건설단계에는 정보통신 인프라를 먼저 구축하고, 정보환경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고려한 공간배치 등을 통

해 도시발전을 선도하는 도시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한다. 도시공간구성은 u-Community 등 u-개념에 적합한 새로운 공간구성체계 실현하고, 새로운 산업활동 육성과 기존의 교통문제를 개선하고 녹지와 문화공간의 확대로 도시환경을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 관리·운영단계

건설계획은 추진기관이나 지자체의 예산 허용범위와 기술적 지원이 가능한 범위로 사업을 규정하면서 공공과 민간의 역할 구분과 사업실현을 위한 지속적 협력관계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u-City 건설을 통해 기존 도시가 갖는 문제점들을 개선시키면서도 정보격차 등 새로운 도시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사회적 약자를 우선 배려하도록 해야 한다.

IV. u-City 건설에서 구성주체별 역할

4.1 u-City 건설의 구성주체

u-City 건설은 일반적인 도시건설에 참여하는 주체와 동일하게 공공과 민간으로 구분할 수 있고, 각종

연구나 설계자문 등을 하는 학계와 연구기관 그리고 사용자로 구성된다.

공공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사업자로 구분되며, 민간은 통신사업자, 건설업자 그리고 금융 및 각종 서비스 제공자 등으로 구분된다. 다음 표는 u-City에 참여하는 참여주체를 구분한 것이다.

4.2 u-City 건설단계별 역할

u-City 추진에 참여하는 주제별 역할을 추진 단계에 따라 살펴보면, 계획단계는 u-City에 대한 전략계획(Ubiquitous Strategy Plan, USP)을 수립하는 단계

로 u-City의 건설 및 건설 후 관리/운영을 위한 도시비전, 비즈니스 전략, 기술 솔루션 설계, 핵심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사업에 대한 추진 로드맵 등의 내용을 계획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국가, 지자체, 공공사업자, 기간통신사업자, 도시개발전문기업, 학계·연구기관 등의 관련 구성주체를 중심으로 유비쿼터스 전략계획을 수립한다.

건설단계는 도시기반시설의 유비쿼터스 적용과 도시 및 지구차원의 유무선 네트워크 및 통합정보센터를 구축하는 기반조성단계와 단지·건축물의 시공·건설단계를 포함하며, u-City만의 특화된 시설(사업)

표 2. u-City 사업 구성주체

구성주체 구분		세부 구성주체
공공	국가	•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문화관광부 등 중앙정부 관련 부처
	지방자치단체	• 정보화, 도시, 교통, 건축, 환경, 토목 등 지방자치단체 관련 부서
	공공사업자	• 한국토지개발공사, 한국주택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한국관광공사 등 국가 공공사업자 •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개발공사 등 지방 공공공사사업자
민간	기간통신사업자	• KT, SKT, LGT, 하나로 텔레콤 등 기간통신사업자
	기타 관련사업자	• 건설업자 • SI 사업자, 전무장비업자 • 금융사업자 • 부가서비스제공업자
학계·연구기관		• 국책연구기관, 지자체연구기관, 지역대학연구기관 등
사용자(입주자)		• 시민, 공공기관, 기업 사용자 등

표 3. u-City의 사업유형·추진단계·구성주체별 역할

추진흐름 ●————→

구성주체	유형구분	정책	기반시설/인프라		u-단지/건축물			u-서비스		
			u-도시기반 시설	u-인프라	u-City 특화사업		관리운영단계			
					u-공공 단지/건축물	u-민간 단지/건축물	u-특화 시설	u-특화 서비스	u-공공 서비스	u-민간 서비스
공공	국가	✓	✓	✓	✓				✓	
	지방자치단체	✓	✓	✓	✓		✓	✓	✓	
	공공사업자	✓	✓	✓					✓	
민간	기간통신사업자	✓	✓	✓	✓	✓	✓	✓	✓	✓
	건설사업자		✓	✓	✓	✓	✓			
	SI 사업자		✓	✓	✓	✓	✓	✓	✓	✓
	부가서비스제공업자				✓	✓	✓	✓	✓	✓
학계·연구기관		✓	✓	✓	✓	✓	✓	✓	✓	✓
사용자(입주자)		✓			✓	✓	✓	✓	✓	✓

을 포함한다. 이 단계에서는 해당 시설 제공 주체별로 참여한다.

관리/운영단계는 도시통합센터를 중심으로 건설단계에서 제공된 u-기반시설, u-인프라, u-도시특화시설, u-단지/건축물에 대하여 유지, 관리, 개선을 수행하며, 각 시설의 활용과 다양한 u-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이다. 통합센터의 운영, 시설의 유지, 관리, 개선 및 서비스 제공은 해당 주체별로 참여하게 된다.

4.3 u-City 공간위계별 역할

공간의 위계별 참여주체의 구분을 위해 국토레벨, 도시레벨, 단지/지역/지구레벨, 부지/건축물레벨로 공간을 구분하고, 각 공간단위에 대한 참여주체와 참여 내용을 구분하도록 한다.

국토레벨에서는 u-City 전반에 관한 거시적 틀(u-City USP 수립, u-도시기반시설 및 u-인프라의 기준, 필수 u-공공단지 및 건축물 제시, 제공하여야 할 u-공공서비스 등)을 제시하는 것으로 광역의 공간계획의 참여주체(국가, 학계, 연구기관 등)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공동기준이 되는 방향과 틀을 제공하도록 한다.

도시레벨에서는 해당 도시를 관할하는 지자체의 주도적 참여를 통하여 해당 지자체의 비전과 특성에 맞도록 국토레벨의 틀에 지자체의 특성을 살리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도시레벨과 그것의 하위공간위계에서 도시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즉 도시레벨에서는 도시특성을 살린 u-단지/건축물, u-특화시설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원칙과 기준 등을 마련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단지/지역/지구레벨은 도시레벨과 부지/건축물레벨을 연계하는 공간위계로 도시레벨의 기준을 수용하여 단지/지역/지구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부지/건축물레벨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 레벨에서는 지자체와 민간의 주도적 참여를 통하여 지구단위의 u-기반시설과 u-인프라를 설치하고, 단지/지역/지구 내의 하위의 부지/건축물레벨이 갖추어야 할 세부 u-시설 및 서비스 기준 및 시설 및 서비스를 제공한다.

부지/건축물레벨은 공간의 최하위 단계로 실제 공간 점유자(사용자)에 의해 집행되는 데, 상위레벨의 기준을 수용하고, 해당 부지/건축물의 개성을 강조하는 시설(u-특화시설, u-민간건축물, u-테마 공간 등)과 고유서비스(u-특화서비스, u-민간서비스 등)를 마련하고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V. 맺는 말

u-City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의는 주로 기존 도시공간의 틀 속에 통신인프라와 중앙관제센터 그리고 RFID와 센서들이 결합된 장치들이 설치된 도시의 이미지만 강조되었고, u-City 제공되는 서비스들은 실현성이 불분명하고, 시민들의 수요와 연결될지에 대해서도 아직 분명하지 않다. 또 시민들의 요구에 따른 서비스 제공이 아니라 서비스를 창출하여 시민에게 제공하는 공급자 위주로 진행되고 있어 이대로 u-City가 진행되면 미래적 가치로 추구하는 바람직한 도시의 모습이 아닌 전산화된 도시건설의 단계에 머물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본 연구는 우선 u-City의 공간에 대한 개념을 먼저 규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u-City의 실현을 위해 공간계획의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관점과 u-City의 건설 과정에 관련하는 다양한 구성주체들의 역할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u-City 만의 특화된 도시건설이 도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연구는 기존의 도시건설 단계를 전제로 도시건설과 참여를 제안하였다는 한계를 가지지만, 현재의 기술적인 한계 속에서 공공과 민간의 개별 구성요소들이 각 단계별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지를 구체화하였다는 의미를 가진다. 그리고 향후 u-City 만의 특화된 건설방법과 구성주체의 구체적인 역할이 설정되면 달라질 수도 있지만, 향후 u-City의 건설과 공간계획을 구체화시켜나가기 위한 기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 [1] 건설교통부, “유시티 건설지원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2006. 12. 20.
- [2] 건설교통부, “u-기업도시 기능설정을 위한 연구”, 2006(12).
- [3] 김정훈, “유비쿼터스 도시건설-새로운 도시공간 개념을 찾아서”, 국토정책 Brief 제34호, 2003(10).
- [4] 김정훈, “유비쿼터스와 도시계획”, 도시정보,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5(4).
- [5] 노현진, 유비쿼터스 기술 구축 형태를 고려한 u-City 공간계획요소 분석, 연세대학교대학원, 2005(12).
- [6] 신계호, “Ubiquitous와 신도시 공간창조”,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도시정보, 2005(4).
- [7] 최남희, “유비쿼터스 컴퓨팅의 공간적 특성과 u-도시의 구현”, 도시문제, 제39권, 제427호, 2004(6).
- [8] 최봉문. “도시계획측면의 u-City개발”, 인간과 도시특성에 대응하는 u-City개발심포지엄, 2005(11).
- [9] 최봉문, u-City 개발에 대한 공간계획측면의 고찰, 주택도시 제87호, 2005.
- [10] 최봉문, 임영택, 지방자치단체의 u-City 개발 동향 분석과 개발방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6권, 제1호, 2006(1).
- [11] 한국토지공사, U-City 개발 및 운영방안, 2006(2).

저자 소개

최 봉 문(Bong-Moon, Choi)

정회원



- 1985년 2월 :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공학사)
- 1987년 2월 : 한양대학교 대학원 도시공학과(공학석사)
- 1992년 8월 : 한양대학교 대학원 도시공학과(공학박사)
- 1992년 6월 ~ 현재 : 목원대학교 도시공학부 교수 <관심분야> : 도시계획, GIS, u-City